

자료제공 : 2023. 2. 7.(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2133-5260

미주구주팀장

전영우

2133-528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담당자

최문형

2133-5285

## 서울시,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에 30만 달러 지원

- 2월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에 30만달러 지원
- 오세훈 시장,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위로서한과 함께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마음 전해
- 시,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할 것

- 서울시는 지난 2월 6일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30만 달러 (한화 약 3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국제적 책임 강화, 외국정부의 긴급재난 구호를 위한 대외협력기금에서 매년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해(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재난당한 외국 시민과 지방 정부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다.
  - 서울시 해외도시 구호 현황 : '18년 10월 인도네시아 지진(10만 달러), '18년 8월 라오스 댐 붕괴(5만 달러), '17년 9월 멕시코 지진(5만 달러), '08년 5월 중국 사천성 지진(30만 달러) 등 지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국제사회와 함께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시와 자매결연('71)을 체결하고 여의도에 '앙카라 공원(1977)'을 조성하는 등 긴밀한 관계이며,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과도 우호협력 협약('05) 체결 후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